

코로나19 확진자, 광주 20대 이하·전남 40~50대 많아

광주·전남 5일 연속 4천명대 전국 일평균 위중증 환자 증가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수도 5일 연속 4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광주에선 20대 이하 확진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2589명, 전남 2070명이 코로나19에 신규 감염됐다.

광산구 소재 요양병원 18명(누적 24명), 남구 소재 요양병원 9명(35명) 등 집단감염이 지속됐으며, 기존 확진자 접촉 관련은 863명이었다. 특히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신규 확진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721명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확진자가 1285명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전남은 전남 2064명에 이어 이틀째 2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휴일 검사량이 줄어들었는데도 연속 이틀 2000명대 신규 확진자라는 점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위중증 환자로 분류된 확진자는 30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재택치료 환자는 1만344명으로 역대 최다치다. 목포와 여수, 순천, 해남 등 도내 곳곳에서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교회, 어린이집 등 다중시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 확진자는 여수 302명, 순천 298명, 목포 283명, 나주 264명, 무안 152명, 화순 137명, 광양 130명 등이다. 나머지 시군에서도 적게는 16명, 많게는 5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남에서는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154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4일만에 신규 확진자수가 10만명대에서 9만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9만536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41명 늘었고, 사망자도 45명이나 발생했다. 사흘 연속 10만명대였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검사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9만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주(2월 14~20일)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65명으로 전주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병상 가동률은 약 33% 수준으로 감소했다. 누적 치명률도 0.36%까지 떨어졌으며,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도 0.18% 수준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델타 변이(0.7%)와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계절 독감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복지포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미크론 치명률 0.13% 안정적 수준...풍토병 전환 과정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50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현재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의 유행 상황은 코로나19가 풍토병(엔데믹)으로 자리잡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며, 낮은 중증화율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유행 상황을 거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순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상 유행은 굉장히 빠르지만, 위중증·치명률은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며 "(위중증 증가는) 당연

한 현상이거나,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델타 변이의 치명률은 0.7% 정도였고, 오미크론은 0.18% 수준"이라며 "계절독감의 치명률인 0.05~0.1%에 비하면 2배 정도지만, 델타 변이 유행 당시 치명률이 계절독감의 8~9배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치"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중증자는 '60대 이상 고령층'과 '미접종자' 그룹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들의 교집합인 '60대 이상 미접종'이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상승시키는 주요 집단이므로, 중증화 억제를 위해서 요양병원·시설에서 4차 접종을 진행하거나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접종을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확진자 10만명 넘었지만 예상범위...의료대응 안정적"

대응체계 개편 초기 혼선 극복 진단키트 수급 불안 조기에 진정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고 있지만 당초 예상한 범위 내에 있고,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 위중증 환자 수는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예측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확진자 폭증이 사망자 증가로 이어진 외국의 사례를 교훈 삼아 위중증과 사망 위험도를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오미크론 유행을 최대한 늦추면서 미리부터 충분한 병상 확보와 백신접종과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거리두기를 조정할 것도 확진자 급증 속에서도 위중증과 치명률, 의료 대응 역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정부가 내놓은 거리두기 방침과 관련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국의 방역지침 완화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연일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과 맞물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더욱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사람마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처한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짧은 연장'에 불만이 크다"는 현실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 221건 여순 희생자·유족 신고 사실조사 시작

전남도가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진상규명 신고 18건, 희생자·유족 신고 203건 등 221건에 대해 3주간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사실조사임을 감안, 진상규명 신고에 대해서는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와 조사 시점과 범위,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조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요원 채용 이후 조사할 계획이다. 희생자·유족신고 중심으로 조사를 해 시행 초기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실조사에는 전남도와 시·군 책임공무원 39명, 사실조사 요원 20명을 투입한다. 시·군에서는 각 관내 읍면동과 분청 민원실에서 신고 받은 건에 대해 서류 검토, 신고인과 보증인에 대한 면담조사를 한다.

전남도는 조사팀장 등 5명의 책임공무원과 2

명의 사실조사 요원이 전남 외 지역에서 실무위원회를 우편 신고한 24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군 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조사도 한다.

전남도와 시·군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도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 검토자문 등을 거쳐 3월 말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후 4월 초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유족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내실 있는 사실조사를 위해 지난 18일 순천 조례호수도서관에서 여순사건 전문가로 현재 중앙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인 주철희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6시간의 직무역량교육을 했다. 시·군 책임공무원과 사실조사 요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교육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 과거 사정리위원회 여순사건 조사결과 분석 등을 교육했다.

한편 여순사건 관련 신고·접수는 2023년 1월 20일까지다. /윤현석 기자 chadol@

직장인 평균 월급 320만원...4명중 1명 150만원 미만

2020년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은 한 달에 평균 320만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근로자 4명 중 1명의 월급은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한 달 급여는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임금근로 일자리에 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6%(11만원)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의 증감률을 나타내는 중위소득도 242만원으로 1년 새 3.5%(8만원) 늘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월평균 소득이 150만~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27.9%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소득이 8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13.9%, 85만~1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10.2%로 각각 집계됐다.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24.1%)은 150만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은 것이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19.9%였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29.4%를 차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52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71만원으로 여성(247만원)의 약 1.5배에 달했고,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도 여성(28.9%)이 남성(20.6%)을 웃돌았다. /연합뉴스

지분 부동산
바로처리. 010-6837-4700

경기·수도권 투자
5억원 이상
(주)오천.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대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톤바우 129㎡(39평)
· 토지 8,098㎡(2,452장)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사채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철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 구내포장 배수소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영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가지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9십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정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생
전원주택지 10여-귀촌-휴양지 적합 매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기주택 가능 매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홍주 010-3454-2389

발생암매각공고

- 1. 입찰전명·발생토목 계약**
호남고속철도2단계 3공구에서 발생된 토석 580,480㎡(자연상태기준)당당. 단, 현장 사정에 따라 전체 수량이 변경(증,감) 될 수 있음
구분 단위 토사 총합량 연경량 합계 비고
수량 ㎡ - - 580,480 580,480
- 2. 현장설명회,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경소·호남고속철도2단계 3공구 현장사무실)**
가. 현장 설명 회 : 2022년 03월 03일(14:00)
나. 입찰등록마감일 : 2022년 03월 10일(14:00)
다. 개찰일 시 : 2022년 03월 10일
라. 낙찰자 선정 : 2022년 03월 17일
(각 입찰자의 경제성 평가 산정을 위해 개찰 7일 후 낙찰자 발표)
- 3. 입찰방법·입찰 매각 일할**
가. 입찰매각 : 원석은반비, 원석대를 비교하여 경제성 평가 최적격(공사비 절감)인 업체
※입찰시 토석은반비를 수요처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우리현장이 각 입찰조건을 고려하여 표준품으로 산정한 운반비로 간주 함.
나. 입찰매 : 입(연,경양)은 운반조건이 같을 경우 원석대만으로 낙찰자 결정
다. 입찰 참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시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4. 계약착수 및 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06월 22일
5.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매각의 경우
1) 현장설명회 현재 "골재취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골재 선별 및 파쇄업을 통행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2)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현장설명 시 제출하여야 한다.(아직장 또는 골재 생산시설 위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3개월간 발생되는 발생량을 아차할 수 있는 아차장이 확보 되어야 함)
나. 공동사찰
현장설명회 기준으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장설명 시 국제 및 지방세 원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업체 제출서류(입찰관련 서류는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
가. 골재생산시설 또는 사도장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위치도 1부
나. 골재 선별 파쇄업 사업자 등록증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제 1부
라. 시·군·자치단체 인감증명서 1부
마.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및 재직증명서 1부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처(우편접수는 불가함)
○ 호남고속철도2단계 제3공구 김리사무실(☎061-452-1063)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담당자(☎062-605-5365)

2022년 2월 22일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재민공고)
주식회사 그린솔(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유정전력(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2년 2월 17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채권(당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의무는 "을"이 승계하고, 상해 제303조의3항에 의거하여 총지배인이외의 채권·채무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한다. 1. 현재 갑에 관계되는 본 공고대상 채권·채무 1명(이하에 의결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바라와야에공고한다.
2022년 2월 22일
분할합병대상 : 전(주)유정전력(☎01245)
"갑" (양도인) 주식회사 그린솔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646(자야동) 대표이사 류송중
"을" (양수인) 주식회사 유정전력
경상남도 진주시 경양로5길9(강동) 대표이사 박병욱

분할합병공고

(주권재민 및 채권자이익보호공고)
동광전기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부경전기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기 2022년 02월 21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소상시설공사사업 영업부분을 분할하여 "을"의 분할된 재산인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은 존속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대상 영업인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바라와야에공고한다.
2022년 2월 22일
"갑" 동광전기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안길 16, 1층(사동) 대표이사 김형삼
"을" 부경전기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08 대표이사 최기환

산행안내

2월27일(일)
▲광주서산악회 2월27일(일) 경북봉화&오지나들
강미경체력마드립&"협곡역사"트레킹 *염주체육관05:00, 동야병원05:05,롯데백화점05:10,광주역05:15,문예후문05:25,비엔누주점05:30 *다음카페 광주서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70년

光州日報
에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